



소속감을 찾아서: 한인교회 네트워크의 사역

세대간의 차이가 크고 문화적 네러티브가 잘못 이해될 때 어떻게 교회는 소속감을 증진할 수 있을까요? 필라델피아 노회 속한 한인교회 교우들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진솔한 질문을 묻고, 자신의 교회와 각각의 이웃속에서 소속됨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탐구해 보도록 연합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1세, 1.5세, 2세로 구성된 한인들로 이루어진 회중들의 네트워크에게 이와 같은 상호나눔은 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추적입니다. 김병일 목사는 “정체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며,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한인들의 독특한 세대간 복잡성을 인식하여, 한인교회와 필라노회는 최근에 이지은 목사를 한인교회들의 교육과 전도를 담당하는 목사로 안수했습니다. 한인교회들과 함께 일하는 첫번째 여성목회자인 이목사의 교회는 부모, 조부모, 자녀들이 함께 성인으로서 이민의 경험, 청소년으로서의 동화의 경험,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코리안 어메리칸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탐구의 경험을 나눌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결국 모두가 포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공통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속감을 찾고 있고 우리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넘어 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모두가 중요한 대화와 어려운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공통적 근거가 창조되는데, 이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목사는 말합니다.

참여자들이 기꺼이 이런 옹기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한인 교우들은 겸손하게 경험하지 못해 본 물속으로 들어갔고, 복음이 진실로 그들의 시간과 장소에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 진정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참여자로서 꿈을꾸고, 나누고, 말할 수 있는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어떻게 각각 어떤 배경으로 부터 오는 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 1세대가 자신들이 이런 이해를 온전히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체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한인 전통속에서 부모는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만하고, 모든 것을 보기 좋게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엉크러져 있고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런 것에 대해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진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 이목사는 말합니다.

많은 한인교우들이 교회를 자신들이 타자가 되고 지배문화로 부터 소외되는 세상으로 부터 벗어난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인이며 필라델피아 노회의 지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인” 이라는 규정된 것을 통해 주로 알려지기 보다는, 번성하고, 왕성하고 활동적인 존재로 알려지기를 더욱 갈망합니다. “과거에는 벽들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벽을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인 교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커다란 몸의 일부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 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고 느끼면서도 더 큰 몸과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시도는 거의 긴장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목사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회를 통해 더 커다란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고 이목사는 말합니다.

표용과 관계의 정신으로 인해 이 중요한 회중들이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내가 아니라 교회 밖을 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리로 나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김병일 목사는 제안합니다. 이런 목회적 언어는 한인교회들이 받아들인 활성화되고 통전적인 사역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인교우들은 자신들의 증인의 사명이 고립되지 않고 더 넓고 교류적이되도록 하며, 또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이 제시하신 신비속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로서, 세대간, 교회간, 지역간의 경계를 넘어서 그들의 소명을 확장시켰습니다. 우리가운데 있는 신실한 한인 회중들의 사역과 증인의 사명이, 우리 노회의 교회들이 세대를 교통하는 소명감을 탐구하는데 있어 도전정신과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촉진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귀중한 구성원이라고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